



보도시점 2023. 6. 30.(금) 11:00 배포 2023. 6. 30.(금) 08:00

2023년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 발표

- 32개 중앙부처 376개 과제 평가결과, 83개 과제 S등급, 224개 과제 A등급
- 17개 시·도 기관 평가결과, 경상북도 및 광주광역시 등 5개 지자체 우수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6월 30일(금) 32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2022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앙부처 평가는 32개 부처에서 수립한 376개 청년정책 과제에 대해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나누어 과제별로 평가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마련하였다.
 - 17개 시·도 평가는 분야별로 대표과제를 제출토록 하여 종합적인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이는 분야별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와는 달리, 지자체는 청년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금번 평가에는 38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19명의 청년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청년 참여·주도성,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사업계획 이행도 등 다양한 정량·정성지표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 * (평가단) 중앙부처 : 전문가 28명, 청년 14명 / 시·도 : 전문가 10명, 청년 5명
- 평가결과, 중앙부처 376개 과제 중 83개 과제는 S등급, 224개 과제는 A등급, 68개 과제는 B등급을 부여받았다.
 - 시·도 평가에서는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1. 중앙부처 평가 결과

[일자리]

-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은 총 148개 과제로, 30개 과제는 S등급, 89개 과제는 A등급, 29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농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취·창업 역량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직무교육훈련과 일경험 등을 통해 취업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한 고용노동부의 민관협업형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이 있다.
 - * (예시) 삼성전자(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CJ올리브네트웍스(리모트 인턴십), 카길 에그리퓨리나(차세대 축산리더아카데미), RBW(엔터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 등
 - 그 외에도 우수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교육, 사업계획 검증 단계부터 창업실행, 수출·마케팅 등 성장 단계에 이르는 창업 전(全)단계를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이 대표 우수과제에 해당한다.
- 개선방안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유인책·인센티브를 확대할 것,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창업 이후 조기 폐업률 감소를 위한 보완책을 포함시킬 것 등이 제시되었다.

[주 거]

- 주거 분야 청년정책은 총 27개 과제로, 2개 과제는 S등급, 10개 과제는 A등급, 15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 주거 분야 청년정책은 청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1%대~)로 전·월세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저리대출상품 운영사업이 있으며,
 -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임대주택단지,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다만, 청년 의견에 근거한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금지원 방식 이외에도 계약-이주-정착까지 주거 공급의 전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밀착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교육]

-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총 107개 과제로, 36개 과제는 S등급, 61개 과제는 A등급, 10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소프트웨어, 스마트공장·스마트팜, 정보보안 등 신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 교육이 청년들의 해당 직종에 대한 선호와도 부합하여 취업으로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인재에 대해 자율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을 제공하여 SW분야를 선도하는 리더로 육성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 마에스트로 과정,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중 학점취득 등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복무 이후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병무청의 사회복지요원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사업 등이 대표 우수과제이다.
- 다만, 공급자(대학, 기관 등)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사업대상 청년 위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다양화하는 등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복지·문화]

-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은 총 54개 과제로, 9개 과제는 S등급, 37개 과제는 A등급, 8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지급액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저소득 신진 청년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 등 취약청년 지원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다.
- 지자체와 연계하여 마일리지·카드사 혜택 제공을 통해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킨 국토교통부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다양한 분야의 신진 청년 예술가에 대해 교육·전시활동 등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르코(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 등이 대표 우수과제이다.
- 다만, 자산형성사업의 경우 금융·재무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 청년 마음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상담사들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재정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해소 등 인식 개선 정책과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여·권리]

-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은 총 39개 과제로, 6개 과제는 S등급, 27개 과제는 A등급, 6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 개정, 거버넌스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 청년정책 운영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지역 활동과 주민소통 기회 등을 제공하여 지역에서의 청년 참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지역 청년들이 구성한 청년공동체의 행사·콘텐츠 제작, 교류·협력 지원, 멘토 및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청년공동체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청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행정안전부의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대표적인 우수사례이다.

-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다양한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사후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2. 시·도 평가 결과

- 올해는 지자체 기관평가 첫 해인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청년정책 추진 노력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우수지자체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 17개 시·도 평가 결과,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 경상북도는 한국무역협회, 한국해비타트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무역·신성장산업 등 대학별로 특화 분야를 선정하여 우수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년마을 만들기(행안부) 등 중앙부처 사업과 지역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광주광역시는 청년13(일+삶)통장 수기공모를 통한 저축습관 유지, 토크 콘서트, 청년월세 자가진단 자체구축, 정책캘린더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청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였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효과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그 외에도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SW혁신인재의 양성 및 공급을 지원한 서울특별시, 청년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청년의 창조역량 제고와 더불어 조치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충실히 운영하여 지역청년의 정책 참여를 적극 보장한 부산광역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우수과제 담당자와 지자체 우수기관은 다가오는 청년의 날(9월 16일)에 포상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청년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청년정책조정실	책임자	팀 장	유미년 (044-200-1988)
	청년정책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최수연 (044-200-1996)



참고 중앙부처 분야별 종합평가 결과

분 야	과제수 (개)	평 가 등 급		
		S	A	B
합 계	375	83	224	68
I. 일자리	148	30	89	29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70	12	41	17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56	15	32	9
3. 일터 안전망 강화	10	1	6	3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개선	12	2	10	0
II. 주 거	27	2	10	15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9	1	2	6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7	1	3	3
3.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5	0	3	2
4.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6	0	2	4
III. 교 육	107	36	61	10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3	4	7	2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59	15	37	7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1	16	15	0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	1	2	1
IV. 복지·문화	54	9	37	8
1.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7	2	4	1
2. 청년 건강 증진	8	1	6	1
3. 취약계층 지원 확대	14	3	9	2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25	3	18	4
V. 참여·권리	39	6	27	6
1.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8	1	3	4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4	1	3	0
3.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9	2	6	1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18	2	15	1

*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제 공론화장 운영(국조실)' 사업이 '청년 거버넌스 확대(국조실)'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평가도 통합하여 진행